

**삼성전자, 구글·야후와 전략적 제휴**



세계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 야후와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12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 인터넷 업계의 최고 강자 구글, 야후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구글, 야후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휴대폰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정보통신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구글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구글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구글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휴대폰을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구글폰'에는 휴대폰 메뉴에 구글의 아이콘이 별도로 설치돼 한번의 클릭만으로 구글의 모바일 검색 사이트인 '구글 서치'에 접속할 수 있다.

지도, 위성사진, 위치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글 맵', 구글의 메일 서비스인 'G메일' 등도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또 야후와 손잡고 전 세계 60여개국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야후의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시될 삼성전자의 '야후폰'으로는 '야후 고(GO)', '야후 원서치', '야후 메일', '야후 메신저', '야후 개인정보 관리' 등 다양한 야후의 모바일 인터넷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야후는 삼성 휴대폰을 통한 야후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은 "지금 세계는 기존의 고정형 인터넷의 시대에서 이동이 가능한 모바일 인터넷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모바일 인터넷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초소형 노트북 시장 공략 강화**

LG전자가 12.1인치 와이드 노트북 신제품을 출시하며 초소형 노트북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LG전자 올해 첫 신제품인 '엑스노트 Z1시리즈'는 12.1인치 와이드 LCD와 내장형 ODD를 탑재하고도 1.89kg 무게의 휴대성

을 강조한 올인원 노트북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12.1인치LW25, TX시리즈 및10.6인치 A1, C1시리즈에 이어 Z1시리즈를 추가해 초소형 노트북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로써 LG전자는 엑스노트 전체 판매 중 10% 대 초반 수준이던 초소형 노트북 판매 비중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올릴 계획이다.



또한 Z1시리즈 출시를 계기로 프리미엄 노트북 컨셉인 '블랙&화이트' 디자인 풀 라인업(S1-15.4인치/T1-14인치/Z1-12인치/A1,C1-10.6인치)을 구축, '07년 노트북 시장의 디자인경쟁 우위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엑스노트 Z1시리즈'는 인텔 코어2 듀오 T5600 (1.83GHz, L2 cache 2MB) CPU, SATA 방식의 100GB대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해 메인 노트북 이상의 성능을 구현한다.

또한 차세대 운영체제인 '윈도 비스타'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고성능 그래픽 'ATI Mobility Radeon X1350'을 적용, 향상된 그래픽을 구현하며 3D게임, 영화감상에도 탁월하다.

특히 최대 출력 3W(1.5W\*2)의 고성능 내장 스피커와 최신 음향기술인 'SRS WOW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미 라스베이거스서 와이브로 공동시연	2007/01/10
2	삼성전자, 케냐의 육상 꿈나무 키운다	2007/01/09
3	삼성전자, 미 버라이즌에 미디어플로폰 공급	2007/01/08
4	삼성전자, CES서 '디지털 코리아' 자존심 내세운다	2007/01/07
5	삼성전자 '듀얼페이스' 휴대폰 전격 공개	2007/01/04
6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리얼 더블 사이드 LCD 개발	2007/01/04
7	삼성전자, 세계 최초 1기가 모바일 D램 개발	2006/12/27
8	삼성전자, 2006년 협력사 1,661억원 지원	2006/12/25
9	삼성전자, 와이브로 상용 장비 수출 시작	2007/01/01
10	삼성전자, '울트라에디션 HSDPA' 유럽 출시	2006/12/27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차세대 듀얼 포맷 플레이어 세계 첫 출시	2007/01/08
2	LG전자, '2007 엑스노트 아카데미' 행사 실시	2007/01/04
3	LG전자 초콜릿폰, 3세대 휴대폰 시장서도 인기몰이	2007/01/03
4	LG전자, '샤인' 해외 첫 공개	2007/01/02
5	LG전자, 일본 SEGA사와 풀 HD 공동 마케팅	2007/01/02
6	LG전자, 6세대 디지털TV 수산칩 출시	2006/12/27
7	LG전자, 파리 중심가에 '워시바2' 오픈	2006/12/26
8	LG전자, 사내 보육시설 지방으로 확대	2006/12/26
9	LG전자 DVB-H폰, 유럽에서 디자인 만족도 1위	2006/12/22
10	사우디 최대 쇼핑몰서 브랜드샵 오픈	2006/12/21

HD', 'SRS TruSurround TX' 기술을 적용해 풍부한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키놀림과 타이핑감을 최적화한 키보드 설계, 오른손 사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방열팬을 왼쪽으로 배치하는 등 세부 설계까지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대우일렉 클라세, "KP-151HA" 2006 인기상품으로 선정**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지난 지난해 1월 선보인 프리미엄 에어컨 '클라세(Klasse)'는 국내 최초로 기존 내부팬 이외에 에어컨 내부 상단에 별도의 팬을 하나 더 장착해 2개의 팬으로 바람을 더 멀리 더 빨리 전달시키는 '인터쿨러'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제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시험결과 기존 제품 대비 냉방시간은 32% 향상되고 월간 소비

전력은 41% 절감시켜 한달 사용시 전력소비가 약 4만원 이상 절약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어컨 열교환기 표면에 '2중 UV 살균램프'를 채용해 에어컨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페렴균이나 녹농균 등의 유해세균을 99.9% 까지 제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산뜻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입체회오리 기술을 이용한 급속 냉각으로 김치의 부패균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외기 하나로 두 대의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원 기능, 미세한 실내온도 변화와 습도, 공기의 흐름을 스스로 감지해 풍량과 풍속을 제어하는 스마트 절전기능으로 절전효과를 강화했다.

디자인 부분도 한층 보강해 매혹적인 패턴과 레드홀릭·마가리타 블루 색상을 적용하고 원터치 패널·LED 디스플레이 등 인터리어 기능을 부각시킨 인터리어 모델 '22모델'을 비롯 2006년도 신제품으로 총 48개 모델을 출시했다.

대우일렉 국내영업 김명범 상무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어컨 구매 시 전기 소모량이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쿨러 에어컨은 차별화된 냉방기능으로 소비전력을 획기적으로 낮춰 소비자들의 욕구를 크게 만족시켰다"며 "내년 초에도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시해 올해에 이어 매출 20% 성장 달성, 에어컨 시장에서 대우일렉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 올해 매출 1조 5000억원 목표**



LG이노텍이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25% 증가한 1조5000억원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광다이오드(LED), 멀티칩모듈(MCM) 등 소재·소자 사업을 선정했다.

허영호 LG이노텍 사장은 3일 신년사에서 "발광다이오드, 멀티칩 모듈 등의 소재·소자 사업을 오는 2010년에는 전체 매출의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중대형 백라이트유닛(BLU), 조명 등으로 LED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MCM사업은 DMB, 블루투스 등 신규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LG이노텍의 LED 및 MCM 사업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그쳤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연말 광패키지사업부 소속이었던 LED 및 MCM 조직들을 한데 묶어 각각 LED사업팀, MCM 사업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최근 LED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웨이퍼레벨패키징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MCM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해 저온동시소성세라믹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갖춘데 이어 DVB-H 모듈, T-DMB 모듈 등을 개발하고 플립칩 실공법을 사용한 패키지 기술을 적용해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튜너, 모터, 파워 등의 부품 단품사업과 LCD, 카메라 등 모듈 사업 등 기존 사업은 올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토닉스, 2상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출시**

제어기기 전문업체 오토닉스가 보급형 스테핑 모터시장을 겨냥해 2상 스테핑 모터 드라이버 2종을 출시했다.

오토닉스가 처음 선보인 2상 스테핑 모터 드라이버 MD2U 시리즈(사진)는 유니폴라 정전류 드라이브 방식과 마이크로 스텝구동으로 정밀제어를 실현하였다. 또 저속회전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동전류 조정기능 및 모터 정지전류 조정기능도 내장했다.

이 회사의 구성회 이사는 "내년 초에는 2상 스테핑 모터 본체도 출시하여 스테핑 모터 사업 영역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닉스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5상 스테핑 모터 국산화에도 성공한 바 있다.

**삼성코닝정밀유리, "효율경영 박차"**



"모든 경영활동이 매출과 손익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전사적 효율마인드가 필요하다."

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환율 등 불투명한 지표와 점점 심화

되어가는 경쟁상황에서는 과거의 성공 요소나 방식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전의 성공요인인 차별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어려움에 예상되는 모든 부문에 효율을 높이자"며 효율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실물자산, 금융자산, 고객자산은 물론 임직원 역량과 리더십과 같은 조직자산까지 모든 경영자원을 자산화해 효율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차별화 전략의 핵심은 품질과 가치라며 올해 '종합 품질 대응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세계 최대 8세대 기판유리의 양산공급, 친환경 제품인 '이글 XG' 등 신

가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LG엔시스, 종합 보안회사로 변신

LG엔시스가 새해 통합 보안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보안회사로 변신한다.

지난해까지 침입방지시스템(IPS) 중심의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영업에 집중해온 LG엔시스는 이를 근간으로 하이엔드 라인업을 강화하며 관제 등 서비스 부분을 확대해 18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솔루션 영업에 집중해온 LG엔시스가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전략을 내세우면서 벤처기업 위주의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LG엔시스는 상반기 중 10기가비트 '세이프존 IPS-10G'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네트워크프로세서(MPU)를 기반으로 멀티코어가 장착된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다.

LG엔시스는 트래픽을 샘플링하지 않고 전체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강력한 하드웨어 기반의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종합 보안회사로 변신하면서 백본부터 클라이언트 단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또 일본 시스템통합(SI) 및 네트워크통합(NI) 업체와 공동 판매를 강화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도 주력한다.

### 두산전자BG, 프리즘시트 공급 개시

두산전자BG가 국내외 LCD 패널업체에 지난해 개발한 프리즘시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2월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LCD 프리즘시트를 자체 기술로 개발, 양산체제에 들어간 두산전자BG가 최근 국내 LCD패널업체인 LG필립스LCD(이하 LPL)와 중국업체 1곳의 제품인증을 마치고 납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LPL에 공급되는 제품은 LCD TV용 프리즘시트고 중국업체에는 17인치 모니터용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부터 신성장동력 확보와 사업다각

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용 부품에 주목한 두산전자BG는 사업추진 3년 만인 지난해말 프리즘시트의 양산체제를 갖췄다. 두산전자BG는 프리즘시트에 이어 LCD 편광판용 반사방지필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재료 등 다양한 광학소재를 개발, 사업화해 오는 2010년 매출목표 1조원 달성을 위한 중심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올해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프리즘시트 시장은 3M이 주도하고 있는데 LG전자(RMC사업부)·코오롱·미레나노텍·신화인터텍 등이 진입해 있다. LG전자는 LPL에, 코오롱·미레나노텍·신화인터텍 등은 삼성전자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이레전자, 중국 샤먼전자와 디스플레이 전부분 협력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이레전자산업(대표 정문식)은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 샤먼(Xiamen)전자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부분에 있어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레전자산업 정문식 사장은 "샤먼전자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및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제휴하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시장은 "ERA"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해외진출시는 양사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샤먼전자가 원가경쟁력과 생산측면에서 이레전자는 품질 및 마케팅면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양사가 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샤먼전자는 'Xoceco' 및 'Prima' 상표로 LCD TV 및 PDP TV 전모델의 라인업(Line up)을 갖춘 중국내 대표적 디스플레이 기업이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출하량 기준으로 2006년 1분기에 중국 브랜드 경쟁력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베스트바이에 대규모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다.

### 아이디에스, 시스템 인 패키지 (SiP) 고밀도 실장 제품 본격 양산

IT관련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아이디에스는

최근 차세대 고밀도 실장기술 부각되고 있는 SiP(System in Package)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시스템 인 패키지(SiP)는 디지털 칩과 RF 등 여러 개의 독립 기능을 가진 칩으로 구성된 복합 회로를 하나의 패키지로 실장하는 기술로써 주변 부품들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여 완성품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휴대형 기기 분야에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복합기능 단말기의 컨버전스화가 주요 기술 흐름으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SiP기술 또한 반도체(칩 패키지) 제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디에스는 최근 0603 규격의 칩 실장을 포함하여 0402(가로 0.4mm, 세로 0.2mm) 규격의 칩 실장도 실현해냄으로써 거래처로부터 그 제조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에스는 웨이퍼상의 반도체 칩을 직접 회로기판에 실장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PoP(패키지 온 패키지)형태의 블루투스 모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밀도 실장 제품은 일본 등 일부선진업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고밀도 실장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그 적용제품 영역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삼성SDI, 홍보관 'SDIUM' 오픈



삼성SDI가 흑백TV에서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까지 디스플레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개관했다.

삼성SDI(대표 김순택)는 21일 김순택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사업장 전사 홍보

관 '에스디움(SDIUM)'의 개관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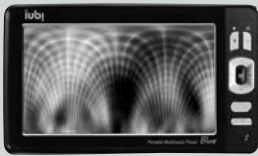
지난 10월 착공된 에스디움은 지상 1층, 132평 규모로 삼성SDI의 역사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을 둘러볼 수 있도록 역사관과 제품관, 체험관, 미래관 등 총 4개 테마로 구성됐다.

역사관에서는 회사에 대한 소개 자료와 진공관 TV에서 102인치 PDP로 이어지는 TV와 흑백 LCD부터 AM OLED로 이어지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제품관에는 삼성SDI가 생산하고 있는 PDP와 브라운관, 2차 전자 제품 등이 전시되고 체험관에는 PDP TV를 이용한 홈시어터 등 제품이 전시돼 방문객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대형 PDP TV가 걸린 벽이 움직이며 최적의 시청거리를 알려주는가 하면 조그마한 2차 전자로 복잡한 기계를 돌려보는 등 체험관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임직원 교육은 물론 학생이나 동호회 등 일반인에게도 개발해 고객 접점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랜텍, 콘텐츠업체와 공동 프로모션

이랜텍이 e러닝 콘텐츠 전문업체인 이투스(대표 유현오)와 손잡고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투스는 자사 웹사이트(<http://www.etbos.com>)서 인터넷 수능 방송 강좌를 32만원 이상 수강 신청한 회원에 한해 이랜텍의 PMP 제품을 무상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중순부터 새해 2월까지 실시한다. 제공되는 제품은 이랜텍의 20GB급 PMP인 'IUBI 블루아카데미·사진'다.

이투스 수강신청 외에도 이벤트 기간중 시중가 26만9000원의 IUBI 블루아카데미를 구매하면 이투스 인터넷 수능방송 강좌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우전자부품, 하이얼과 바이너리 CDMA 포괄적 협력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거리무선통신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대우전자부품은 중국 1위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중국내 바이너리 CDMA 관련 응용 제품의 공동 개발 및 마케팅 부문에서 상호 협력키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해 12월 20일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대우전자부품과 하이얼은 우선 바이너리 CDMA 칩을 이용한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하이얼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홈네트워크 표준기구인 'ITopHome'에서의 바이너리 CDMA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이얼측은 우선 AV 제품에 바이너리 CDMA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부품은 또 하이얼측의 요청에 의해 ITopHome에 가입키로 했으며 이번에 가입할 경우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TopHome은 2004년 7월 하이얼, 중국 망통, 칭화통방, 쌍광덴, 춘란, 창청 사하이버 이링 등 7개 업체가 모여 결성된 중국 내 홈네트워크 표준화 단체로서 현재 247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이다.

바이너리CDMA 기술은 전자부품연구원 개발한 근거리 통신 기술로 500미터내에서 55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대우전자부품은 지난 9월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이 기술을 이전받은 바 있으며 국내 상용화를 위해 현재 국내 홈 네트워크 업체, 무선 DVR 업체, 원격검침 업체 등 20여개 업체들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 팬택애크리텔, 일본시장서 가속페달

팬택애크리텔이 일본에서의 인기몰이로 팬택 계열의 기업개선작업에 희망을 더하고 있다.

팬택애크리텔의 최근 판매결과에 따르면 일본 출시 2차 모델인 '팬택-au' A-1406PT가 출시 3개월만인 지난 12월 3주차에 하루 판매량 5000대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팬택-au' A-1406PT는 11월에는 하루 평균 4000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KDDI사 전체 판매량 중 10%를 상회하는 판매 성과를 거둔데 이어, 12월 3주차에는 하루 판매

량 5000대를 돌파하면서 일본시장 최고의 스테디셀러로서의 입지를 세워나가고 있다.

A1406PT는 출시 다음주부터 일본 유력 모바일매체인 '+D Mobile'에서 발표한 판매 순위 내 상위권을 랭크하였으며, 지난 10월 3주차에는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팬택애크리텔의 일본 사업 담당 관계자는 "일본시장에서 하루 판매 5000대를 달성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2007년 1분기 내 A1406PT 단일모델의 밀리언셀러 등극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내년 일본시장에서의 보다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 우영, GE플라스틱과 기술협력키로

우영은 GE플라스틱과 신개념의 LCD용 백라이트유닛 시트를 공동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양사는 GE플라스틱의 LCD 시트 기술과 우영의 BLU 광학기술을 결합한 고성능 LCD 시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우영은 이번에 개발할 LCD시트를 자사 백라이트유닛에 적용하는 한편 외부 판매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GE플라스틱은 GE그룹의 대표적인 제조회사로 지난 2일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시장 파급력 등을 위해 성남에 '한국기술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우영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술력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급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